

남북통일협력사업의 성과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이 첫째

공화국에서 나라의 주인, 모든 것의 주인이 된 근로자들은 국가의 혜택속에 보람찬 노동생활을 누려가고있다.

이 무슨 일이 나겠다고... 생산이 바쁘다는 구실로 기대 정비를 소홀히 하였던 기대공은 불분은 소리로 증언하였다.

노동자들에게 노동보호용구와 영양제, 여러가지 노동보호물자를 공급하는것도 국가의 법으로 담보되고있다고 말해주는것이였다.

테 커다란 국가적힘을 넣고있습니다. 특히 녀성근로자들의 노동조건보장에 각별한 관심이 돌려지고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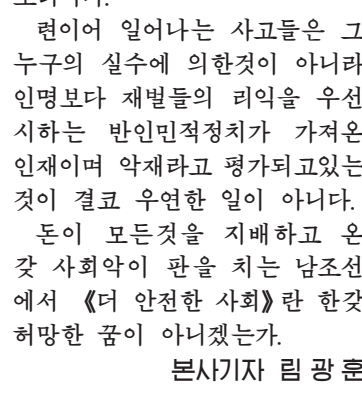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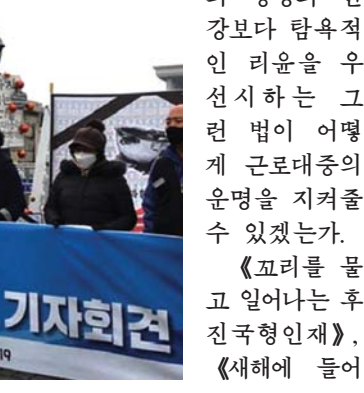


남조선의 곳곳에서 부모, 형제, 자식들을 잃은 가족들의 울분에 찬 통곡소리가 계속 울리고있다.

재벌들의 리윤과 리익이 우선 일어나 수많은 인명피해를 빚어냈다.

우를 세운다. 《중대재해처벌법》만 시행되면 만사가 해결된다

와 《산재왕국》, 《더 위험한 사회》로 가고있다. 《우리는 (재해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다...》



공화국은 무엇으로 하여 이처럼 따뜻하고 아름다운가. 과연 무엇으로 하여 겹겹드는 시련과 난관속에서도 단 한 번의 흔들림도 없이 그렇듯 굳건히 서있는 것인가.

수십년세월 자신을 아낌없이 바쳐가는 고상한 미풍,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의 친자식이 된 청년들의 소행, 사경에 처한 환자들을 위해 피와 살을 서슴없이 바치고 부모없는 아이들을 위해 사랑과 정을 기울이는 아름다운 이야기들...

생사를 다루는 위험한 시각도 서슴없이 바치는것은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키우신 우리 시대 인간들이 지닐수 있는 미덕이라고, 리창선동무의 희생정신과 빛나는 최후는 시대정신으로 우리들의 기억속에 영원할것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의대가정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갖가지의 미덕과 미풍의 꽃이 만발하고 그윽한 향기를 풍기는 사회주의대화원을 가꾸어주신분은 바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이다.

공화국에 자기도 먼저 남을 생각하고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헌신하는것이 생활의 초보적인 룰리로, 도덕으로 간주되고있다.

이 60여년전에 《세상에 부럽잖아라》라는 노래가 나왔고 세상이 사람들이 일찌기 《예수》가 왔다 가도 할 일이 없는 말 그대로 사랑의 공동체라고 찬탄한 이 땅에서는 전체 인민이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며 한마음한뜻이 되어 위대한 미래를 마중해가고있다.

생사를 다루는 위험한 시각도 서슴없이 바치는것은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키우신 우리 시대 인간들이 지닐수 있는 미덕이라고, 리창선동무의 희생정신과 빛나는 최후는 시대정신으로 우리들의 기억속에 영원할것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최근 남조선에서는 경기침체에 의한 생활난이 더욱 심해지고 사회적 갈등과 퇴폐적인 사회풍조 등으로 살인, 강간과 같은 강력범죄가 갈수록 늘어나 그것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번져지고있다.



북녘의 교육현장을 가다 평양교원대학 (3)

나라의 교육사업에서 학령전어린이교육과 소학교교육의 중요성을 깊이 헤아리시고 커다란 관심을 돌리고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2018년 1월 새로 개건된 평양교원대학을 찾으시였다.

새로 연구한데 이어 직관형 상적사고가 우세한 어린이들의 심리적특성에 맞게 관찰력을 기본으로 한 지능평가 3차원형상형시기술을 리용하여 진행하는 새로운 평가방법도 착상하였다고 궁지 높이를 말하였다.

의 로씨야양 연해변강지위원회 위원장 2018. 4. 10.) 《형제적조선인민의 기술발전을 직접 목격하게 된대 대하여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밖에도 대학에서는 소학교 학생들의 발표능력을 높여주고 그들의 인식정도와 교수분위기 등을 예측하여 수업내용을 조정하고 어린이들의 사고력, 기억력, 관찰력, 상상력, 언어능력을 종합적으로 개발시키는 지능개발교육정확도 품성교육정확도를 새롭게 체계화함으로써 대학생들의 교수실천능력을 더욱 높여나갈수 있게 하였다.

이 모든 성과들은 이 대학 교원, 연구자들의 지혜와 기술, 협력의 산물이었다. 내가 몹시 놀라워하자 학생들은 조국에서는 교육부문을 현대화하는 사업과 교육의 질을 높이는 문제를 국가중대사로, 국가의 장래와 관련된 중차대하고 전략적인 문제로 본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앞날의 교원후비를 당에서 바라는 높이에서 키워내겠다는 데 대하여 언제나 머리를 쓰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느라 그런 좋은 생각이 떠오르게 된다고 웃으며 이야기했다.

나 역시 그들과 생각이 같았다. 나는 대학관람에서 받은 감동을 담아 참관록에 이런 글을 남겼다. 《나는 오늘 조선민족의 한 성원으로서 남다른 긍지를 가질수 있었습니다. 이런 훌륭한 교육조건과 교육환경을 갖추고 우수한 자질과 품성을 지닌 교육자들에게 의하여 교육육성되는 교육자후비들의 모습에서 인제강국으로 부상할 머지않은 앞날의 조국을 보았습니다. 교육사업을 국가적인 중대사로 내세우는 조국의 미래는 밝고 창창합니다.》

이 60여년전에 《세상에 부럽잖아라》라는 노래가 나왔고 세상이 사람들이 일찌기 《예수》가 왔다 가도 할 일이 없는 말 그대로 사랑의 공동체라고 찬탄한 이 땅에서는 전체 인민이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며 한마음한뜻이 되어 위대한 미래를 마중해가고있다.

이 60여년전에 《세상에 부럽잖아라》라는 노래가 나왔고 세상이 사람들이 일찌기 《예수》가 왔다 가도 할 일이 없는 말 그대로 사랑의 공동체라고 찬탄한 이 땅에서는 전체 인민이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며 한마음한뜻이 되어 위대한 미래를 마중해가고있다.

이 60여년전에 《세상에 부럽잖아라》라는 노래가 나왔고 세상이 사람들이 일찌기 《예수》가 왔다 가도 할 일이 없는 말 그대로 사랑의 공동체라고 찬탄한 이 땅에서는 전체 인민이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며 한마음한뜻이 되어 위대한 미래를 마중해가고있다.

이 60여년전에 《세상에 부럽잖아라》라는 노래가 나왔고 세상이 사람들이 일찌기 《예수》가 왔다 가도 할 일이 없는 말 그대로 사랑의 공동체라고 찬탄한 이 땅에서는 전체 인민이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며 한마음한뜻이 되어 위대한 미래를 마중해가고있다.



강력범죄가 성행하는 지옥같은 남조선사회

최근 남조선에서는 경기침체에 의한 생활난이 더욱 심해지고 사회적 갈등과 퇴폐적인 사회풍조 등으로 살인, 강간과 같은 강력범죄가 갈수록 늘어나 그것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번져지고있다.

자료에 의하면 가족을 대상으로 감행된 강력범죄는 한해 평균 69건으로서 전체 살인사건의 5%를 차지하며 현인들사이에 발생한 강력범죄건수도 지난 5년간 6만 130여건으로서 그중 살인은 227건, 성폭력은 644건이나 된다고 한다.

남조선의 언론들조차 현인들사이의 폭력, 살인의 바탕에는 성차별의식이 깔려있다. 남조선가정에 경보음이 울리고있다. 가족을 대상으로 한 살인, 폭행 등의 범죄가 선전국의 3~4배에 이른다고 하면서 남조선은 강력범죄에 의해 부리체 흔들리고있다고 평하고있다.

한편을 잊고 사는 혈육간에도 서로 죽일내기를 하는 정도이니 남을 위해준다는것은 꿈에도 생각할수 없는 일이다.

오히려 남을 등쳐먹고 강탈하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으로 되고있다. 더욱 심각한것은 사회의 관심과 보호를 받아야 할 미성년들이 강력범죄의 길에 들어서고있는것이다.

미성년들이 저지르는 강력범죄의 일부는 그 수법과 잔혹성에 있어서 성인범죄 못지 않다고 한다. 2019년 12월 경기도의 초등학교 5학년 녀학생이 말다툼과정에 친구들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였으며

